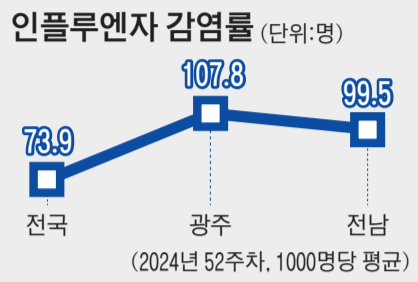


‘인플루엔자의 공습’...2016년 이래 감염자 최다 발생

전국서 1000명당 73.9명 감염
광주 107.8명·전남 99.5명 발생
어린이·임신부 백신접종을 저조
“예방접종 필수, 마스크 착용을”



올 겨울 ‘불청객’ 인플루엔자(독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할 정도로 대유행 중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감염자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2024년 52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3주 전인 49주차(7.3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치다. 연도별 의심 환자 숫자는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 △2021년 4.8명 △2020년 3.3명 △2019년 49.8명 △2018년 73.3명 △2017년 72.1명 △2016년 86.2명이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독감’으로도 불린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이 1000명당 8.6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유행은 그 기준을 8배나 훌쩍 넘긴 상태다. 환자 분포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22~28일(2024년 52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07.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3.9명이 많았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99.5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5.6명이 많다.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이지만 광주와 전남의 예방접종률은 높지 않다. 광주는 어린이의 경우 14만8194명(65.0%)이 접종해 전국 평균 65.7%에 못 미쳤으며, 임신부 역시 6494명(56.1%)으로 평균(60.1%)보다 낮다. 다만 65세 이상은 24만8402명(81.3%)이 접종을 마쳐 전국 평균(80%)을 상회하고 있다.

전남은 어린이 9만7687명(60.9%)이 접종해 전국 평균(65.7%)보다 낮고, 임신부 접종자는 4553명(49.4%)으로 전국 평균(56.1%)에 못 미치고 있다. 65세 이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병원에는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상은 40만8871명(83.4%)으로 전국 평균(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윤나라 교수는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입원 치료 받는 비율이 70%, 독감과 관련한 폐렴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85%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예방접종은 필수이고 독감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수와 접촉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일상생활에서 지켜

야할 감염 예방수칙은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규칙적인 실내 환기 등이다.

한편 지역별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20cm ‘폭설’... “안전 유의”

장성 7.3cm·광주 6.8cm·영광 6.5cm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대비”

20cm 이상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골목길이나 경사로 등은 눈이 쌓여 도로가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5면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전남지역에 9일까지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출퇴근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성 7.3cm, 광주 6.8cm, 영광

6.5cm, 화순 6.4cm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쌓였다.

광주·전남 9개 지역(광주·담양·장성·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내려져 있던 대설주의보는 오후 5시를 기해 4개

지역(무안·목포·신안·진도)에서 해제됐고, 5개 지역은 유지 중이다.

눈은 강하게 내리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을 반복하며 9일까지 지속될 것이다.

특히 8일 늦은 오후부터는 광주·전남에 시간당 3~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9일까지 예상적설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5~15cm이며, 광주와 전남북부 지역에서는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